

광주의 골목길

⑦ 공동 예술의 거리



느린 걸음으로 체험하는 아날로그적 삶

골동품점·벽화 등 골목 곳곳 숨어 있는 명소 많아

현대인들은 판단하고 분별하는 사고에 익숙하다. 거칠게 말하자면 유용과 무용의 가치를 판단한 뒤 잘라내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의 형태는 몸과 정신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든다. 반면에 예술은 느끼고 듣는다. 그리하여 느끼고 들을 수 있도록 돕는다. 멕시코의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아날로지는 ‘세계를 리듬으로 인식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예술품들은 이 세계의 리듬을 화폭에, 흙에, 오션지에 옮긴 약보다.

홍대거리는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지금에 이르는 변화가로 발전했다. 그러나 예술가들로 인해 개성 있던 거리는 늘어난 유동인구에 주요상권으로 모습이 바뀌었고 가파르게 오른 상가 임대료로 인해 예술가들은 새로운 동지를 찾아 떠나고 있다. 이는 모든 가치를 자본으로 통합하려는 가치의 획일화가 나온 현상이다. 자본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자본을 모든 가치들의

절대기준으로 배치하는 게 문제다.

위의 예를 든 건 광주 예술의 거리의 한 산함을 편들기 위해서는 아니다. 이 글의 취지도 광주 예술의 거리가 보다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니 말이다. 다만 나는 한 사람의 행인으로서 현재의 광주 예술의 거리도 좋다. 동부경찰서에서 중앙로까지 불과 300여미터 남짓한 이 거리는 80년대 초부터 화랑을 겸한 포목점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고 87년 공식적으로 예술의 거리로 명명되었다.

이 거리에선 LP레코르트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고 자유롭게 입장에 관람할 수 있는 화랑들과 각종 희귀한 물건들로 가득 찬 골동품점들이 있다. 가판대에 진열된 주인장이 손수 제작한 수공예 액세서리들은 행인들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해 보인다. 매월 넷째 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의 야외경매 및 문화시장이 선다.

물론 예술의 거리는 과거의 향수를 찾으려는 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곳으로 변해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실 그곳은 그렇게 해서 건널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는 선불리 짐작할 수도, 투덜댈 수도 없는 일이다. 사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리고 변한 것은 변했다고 말하는 이들 자신일 수도 있다. 어릴 적 맛에 대한 그리움으로 오디와 같은 것들을 사먹는다 해서 그때의 맛이 나지 않는 건 오디의 맛이 변해서이겠는가.

미관이란 이름으로 외형이 자주 바뀐다. 예술의 거리 역시 허름한 건물의 뒷면과 달리 전면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 그러나 가려진 건물의 뒷면과 측면의 외관은 갈라지고 칠이 벗겨진 곳이 많다. 이는 예술의 거리만이 아닌 대부분의 상가밀집지역에서 보이는 현상이다. 그러나 차이라면 광주 예술의 거리에는 그러한 부분에 벽화가 그려지고 타일아트가 덧입혀져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예술의 거리에는 숨어있는 작품들이 많은 셈이다.

오늘날 우리의 걸음은 대체로 종종걸음이다. 그 걸음은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기 위한 초조함이다. 예술의 거리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종종걸음으로는 곤란하다. 느린 걸음이 필요하다면 멈춰서는 것도 좋다. 멈춰선 곳에서 양 옆도 보고 그곳에 있는 골목과 벽들도 보고 낮은 건물들 위로 뿜어져 있는 하늘도 보고 구불거리는 길도 보고 하는 거다. 그렇게 아날로그적인 시간과 삶을 짧게나마 체험해 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다. 그게 무슨 의미냐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삶은 뻗어있는 길을 두고 굳이 돌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시간은 상대적으로

/김용태 시민기자·소설가



공동 예술의 거리를 장식한 벽화.

광산구 선운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A4블록 84㎡이하 15~18층

일반공급 241세대·특별 349

광주도시공사가 광산구 선암동 선운택지개발지구내 ‘A4블록’ 단지에 84㎡이하 공공임대주택(10년) 입주자를 모집한다. 우수한 학군과 편리한 교통 여건으로 입주예정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대주택 규모는 15층에서 18층 8개동으로, 전용면적 49㎡ 180세대, 76㎡ 106세대, 84㎡ 304세대로 총 590세대를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84㎡가 임대보증금 4750만원에 월임대료 57만8000원 ▲76㎡는

보증금 3970만원 월 53만9000원 ▲49㎡는 보증금 2600만원 월 34만3000원이며, 입주자 희망에 따라 전환기준에 따라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광주시와 전남도에 주소를 둔 무주택 세대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공급유형은 일반공급 241세대, 특별공급 349세대이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으로 나눈다.

신청은 특별공급대상자 중 다자녀가 구 및 신혼부부는 9월 15일, 기관추천·생

애최초·노부모부양은 9월 16일 도시공사 13층에서 방문 접수 받으며, 당첨자 추첨 및 발표는 9월 17일이다.

반면 일반공급 대상자 1순위는 9월19일, 3순위는 9월22일 오전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에서 접수를 받고, 당첨자는 9월 30일에 도시공사 홈페이지(www.gmcc.co.kr)에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거복지관리관실(062-600-6822~6)로 문의하면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여성발전센터 수영장 건강·재미 한꺼번에 잡는다

아쿠아로빅·‘물총데이’ 인기

광주시여성발전센터 수영장이 재단장 이후 광주시민의 건강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지난 7월 재단장 후 다시 문을 연 수영장은 연면적 1093㎡ 규모로 휴게실, 매점 등을 갖추고 있으며, 회원 수만 1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직장인을 위한 새벽·저녁반, 주부·어르신을 위한 아쿠아로빅반, 성장기 아이를 위한 쏘나무육성반,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물총데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상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긴급상황을 대비한 정기안전 교육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은경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관리팀



광주시여성발전센터 수영장에서 주부와 어르신들이 아쿠아로빅을 하고 있다.

당은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편안하고 편리하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중”이라면서 “특히 2015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와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도 앞두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취미활동과 수영 쏘나무를 육성·지원하는데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이용문의는 관리과(062-371-8855)로 하면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추석 벌초·성묘 댄 어두운 색 긴 옷 입으세요”



소방본부 안전주의보 발령

벌·뱀 등 피하고 예초기 조심

광주시소방안전본부가 추석예를 앞두고 벌초와 성묘 시 벌소임, 뱀물림, 예초기 사고 등 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사고 예방법을 내놨다.

지난 31일 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벌초 작업을 할 때는 벌이나 뱀을 자극할 수 있는 흰색이나 노란색 등 밝은 색 옷은 피하고 가능한 맨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두꺼운 양말과 목이 긴 신발, 청

바지 등을 착용하고 코팅된 목장갑과 수건, 보호안경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마실 물과 함께 얼음을 준비하면 더위로 인한 일사병이나 탈수증도 예방할 수 있다.

벌에 쏘여 통증이나 부기가 가라앉지 않을 때는 얼음찜질을 하면 도움이 된다. 부기가 계속되거나 구토,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뱀에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한 뒤 가능한 움직이지 않아야 하며, 물린 곳에서 5~10cm 위쪽을 넓은 천으로 묶어 독이 퍼지는 것을 막고 119

에 신고해 병원으로 신속히 옮겨야 한다. 예초기 작업 중 갈날에 부딪힌 작은 돌덩이 등 이물질이 눈에 들어갔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깜빡거리며 눈물이 나도록 해 이물질이 자연적으로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한편 시 소방안전본부는 추석연휴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캠페인, 소방특별조사, 특별경계근무 등 추석대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공무원(5급~9급)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삼성, 현대, LG 직원 은행원, 연구원 대(중,소)기업 직원 사업가, 자영업 세무사, 연구원 국영기업체 직원 교사, 교수	전문직 희망 여성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간호사, 유치원 교사 의사, 약사, 교사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공무원(5급~9급) 정부투자기관 직원 간호사, 은행원 학원(음악)원장, 강사 스튜어디스, 영양사 미스코리아, 미스전복	25~38세 26~41세 27~42세 25~39세 26~39세 27~42세 25~38세 26~47세 27~42세 26~42세 27~36세	의사, 변호사 국영기업체 기관장 공무원, 교사, 교수 대기업 간부 회사원, 자영업 '무출산 여성' 희망 VIP 희망 여성 학원(음악)원장, 강사 공무원, 교사 간호사, 회사원 자영업, 교사 '무자녀 남성' 희망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안주 이리현) (063) 275-7766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신제품 기적공약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미아빌 상가1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